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아프리카중동 권역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인샬라(ان شاء الله)

성은혜

이집트 출장 준비 중에 보이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인샬라(ان شاء الله)다. 이 단어는 아랍어로 ‘신의 뜻대로’, ‘신이 원하신다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중동지역 사람들이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결정 권한 밖에 있다는 의미를 예둘러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다.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서 이집트 방문 일정 협의 메일을 보내면 며칠이고 답이 없을 때가 있다.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늦는 탓도 있지만 때론 타이밍의 문제기도 하다. 가령 수요일 오후에 연락하면 그 다음 월요일 오전에 출근해서야 이집트 측 회신을 확인할 때도 있는데, 우리와 달리 이집트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두 나라 간 7시간 시차와 함께 엇갈리는 주말 탓에 몇 번씩 타이밍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현지 미팅 약속을 겨우 잡아 놓고, 최종 참석(예정)자를 물으면 그때는 어김없이 “인샬라” 한다.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고 다시 확인해도 현지에 가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애초에 ‘그건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의 답변은 담당자 속을 까맣게 태운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수도 카이로로 향했다. 하늘에서 바라본 카이로는 사막 위에 모래집을 빗어 올린 것처럼 온통 황토빛으로 가득하다. 뻥뻥한 모래도시를 멀뚱히 내려보고 있다 보면 말로만 듣던 피라미드가 저 멀리 서서 환영의 인사를 건넨다. 찰나의 순간에 발견한 피라미드만으로도 이집트에 온 것을 실감케 하기는 충분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속도보다 도로가 더 빨리 생겨나요. 자고 일어나면 새 길이 생겨서 기사들도 헛갈릴 정도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카이로 전경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중 갈림길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운전기사 모습을 보고 현지인 가이드가 농담 반 진담 반, 우스갯소리를 던진다. 이집트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을 추진했다던데 특히나 도로 부분에서 두각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곧 완공될 신행정수도(NAC, New Administrative Capital)와의 연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느낌이었다.

가이드에게 NAC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 물으니 본인이 더 신이 나서 말을 이어 나간다. 낡고 복잡한 카이로를 대신할 신도시로 정부 기관들을 이전하고, 과포화 상태의 도시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덧붙이면서 신행정수도는 스마트시티에 친환경에너지를 결합한 미래형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카이로 시내로 향하는 길

피라미드와 �핑크스, 파라오의 나라, 과거의 영광을 무한히 복제하며 살 것 같은 이집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는 시간이었다.

한국인 입장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업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많은 인내와 양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타이트한 출장 일정상 종일 관계자 면담을 잡아도 기간 내 일을 끝마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표준 업무 시간(9~6시)은 이들에겐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하루에 미팅을 잡을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알려진 이집트 공공기관의 업무 시간은 보통 8~2시이다. 그마저도 출근 시간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느지막이 출근해서 오후 일찍 퇴근을 하니 정해진 점심시간은 따로 없다. 다행히 우리 출장기간 동안은 한국시간을 배려 해 9시부터 4시 사이에 인터뷰 스케줄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시작 시간만큼은 10시, 11시, 12시로 점점 밀려나게 되었다.

일정이 마무리될 즈음, 협조에 대한 보답으로 당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5시쯤 이른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초대에 기꺼이 응했으나 식사 시간이 5시라면 그건 저녁이 아니고 점심시간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보통 퇴근 후 점심(이른 오후)을 먹는다고 했으니 5시는 늦은 점심이 될지언정 이른 저녁은 아니라는 농담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기묘한 밥시차가 생겨났다.

누군가에게는 점심, 어떤 이들에게는 저녁이 되었을 그 식사 시간은 이집트의 수천년 역사만큼이나 길게 흘러갔다(적어도 내 체감상 그렇게 느껴졌다). 이집트 사람들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술을 팔지도, 마시는 손님도 없다. 그런데도 식사 자리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식사를 다 마친 후 테이블을 정리하는 와중에도, 홍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갔다. 아랍어-한국어를 통역해 주시던 가이드가 지쳐 “이제 그만”을 외쳤을 정도라니. (이집트는 흡연자들에게 천국인 동시에 비흡연자에게엔 절망인 나라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어디를 가든 담배 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출장 전 걱정이 많았으나 계획한 일정은 대부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전히 인살라를 외치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 협조적이었고 자신들의 나라를 찾은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몇 날 며칠 서로 얼굴 보며 지내온 탓인지, 앞으로 더 나은 관계가 형성되리라는 기대와 서로에 대한 약간의 신뢰도 쌓인 듯한 느낌이었다.

일하다 보면 시기상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거나 내 권한 밖의 일이라 뜻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될 때



피라미드와 �핑크스

가 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처음 인살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저 이런 경우 할 일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용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했는데, 이제 가끔은 내게 숨 한 번 고르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라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거나, 내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면, 애 쓴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니 말이다.

최선을 다하였는가? 어차피 될 일은 된다.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인살라.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